

한승택 “뜨거운 안방 경쟁, 수비는 내가 최고”

KIA 핫 플레이어 - 포수 한승택

백용환·이정훈은 불방망이
김민식, 강한 어깨로 장점 어필
포수 경쟁, 어느 해보다 치열

안정된 수비 위해 ‘볼 잡기’ 심혈
송구 능력, 코치진에 인정 받아

“투수와 호흡 통한 시너지 중요
타자 삼진 잡을 때 희열 느껴
슬럼프 없이 풀타임 목표”

KIA 타이거즈의 한승택이 ‘평정심’으로
2020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KIA의 안방경쟁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9일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에서 백용환과 이정훈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눈길을 끌었고, 김민식도 좋은 어깨를 과시하면서 자리싸움 중이다.

한승택은 ‘수비’로 안방자리를 어필하고 있다.

한승택은 “포수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경쟁하면서 팀도 좋아지고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감독님께서도 수비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수비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방망이를 잘 치면 수비 쪽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선수비를 이야기하는 만큼 한승택은 수비 안정감을 내세워 포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새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진갑용 코치를 통해 ‘캐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한승택은 “캠핑 처음부터 포수는 제일 중요한 게 공을 잘 잡아야한다고 하셨다. 공을 잘 잡아야 송구를 하든, 넥스트 플레이하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셔서 캐칭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변화를 줬다.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도루 저지도 한승택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다. 연습 경기 없이 훈련이 진행된 지난 30일 한승택은 송구 훈련 시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며 박수를 받았다.

한승택은 “오늘 훈련하면서 방향이 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송구 연습 해봤는데 잘 되더라. 앞으로 내 자신에게 화 내면서 야구를 해야겠다”며 웃었다.

무엇보다 포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수와 의 호흡. 한승택은 투수들을 더 많이 공부하면서 팀 승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한승택은 “도루저지도 좋는데 내가 생각한 볼 배합대로 투수가 삼진 잡을 때 희열이 있다. 포수 아니면 그 기분을 모를 것이다”며 “삼구삼진이나 주자 만루인데 땅볼 유도해서 병살타를 잡는다는 건 할 때도 같은 희열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새로 왔는데 적응도 잘하고 우리와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한다. 연습경기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와 주려고 한다”며 “내가 더 세심하게 선수 특성을 파악해 잘 이끌어주겠다. 얼마 전 연습경기에서 가능성이 실절했지만 내가 파악을 잘 못 해서 점수를 준 것 같다. 직구가 좋아서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점수를 줬다. 그 다음 2이닝, 3이닝 지나고 다르게 볼 배합하니깐 괜찮아졌다. 잘 파악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비에서 우선 주목받는 선수지만 한승택은 타석에 서야 하는 타자이기도 하다. ‘평정심’으로 긴 시즌을 풀어가겠다는 각오다.

한승택은 “기술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같이 가져가려고 한다. 슬럼프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데 최대한 한결같이 가져가려고 한다”며 “계엄하는 것은 항상 똑같아서 타석에 서든, 수비에 나가든 ‘내가 최고’라는 나만의 주문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안 다치고 경기 많이 뛰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치르도록 준비 잘 하겠다. 지금 분위기 계속 이어서 겨울 야구까지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포수 한승택(오른쪽)이 지난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송구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리그 ‘이렇게 달라진다’

엔트리 확대·외국인 선수 3명 동시 출장

7·8월 공휴일 경기는 오후 5시에 시작

2020 KBO 리그 ‘이렇게 달라진다’

코로나19로 늦어졌던 KBO리그 개막이 오는 5일로 확정됐다. 새 시즌을 앞두고 KBO는 더욱 즐거운 경기를 위해 다양한 규정과 규약을 손질했다. 올 시즌 경기 중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을 알아본다.

올 시즌 전력분석 참고용 페이퍼나 리스트벤드의 활용폭이 넓어진다. 지난 시즌에는 외야수만 그라운드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 시즌에는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시프트 등 수비 전술 확대가 기대된다.

투수는 규정상 그라운드 아닌 벤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역 엔트리 등록 수는 27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다. 출장 선수도 25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됐다.

선수 보호를 위한 부상자명단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현역 등록 선수가 경기 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할 경우 한 시즌에 최대 30일까지 부상자 명단 등재가 가능하다. 이 기간 엔트리에서 말소되더라도 등록 일수는 인정된다.

올 시즌에는 3명의 외국인 선수가 동시에 같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 단 3명 전원 동일 포지션 등록은 불가능하다.

7·8월 일요일과 공휴일 경기는 오후 6시에서 5시로 한 시간 앞당겨 시작된다.

비디오판독 시간은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했다.

지난 시즌 논란이 됐던 3피트 라인 위반 수비

방해의 경우 기존 시행세칙을 폐지했다. 대신 공식야구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타자 또는 주자가 수비하는 야수를 방해했는지를 심판진이 판단하기로 했다.

구단의 활발한 전력 보강을 위해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도 허용된다.

구단은 다음 연도 지명권을 2명 이내로 선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단 지명권을 받은 팀은 해당 선수를 입단 후 1년 동안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올해부터 1위 팀 승률이 같은 경우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

경기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치러진다. 만약 1위가 3개 팀 이상일 경우에는 상대전적 다승, 다득점, 전년도 성적순으로 1위를 결정한다.

또 올 시즌에는 코로나19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선수단 운용폭을 넓히기 위해 9월 1일부터 적용됐던 확대엔트리(33명)는 2연전이 시작되는 8월 18일로 앞당겨 시행된다.

더블헤더 진행 시 추가 1명이 등록되고, 육성 선수는 개막 다음 날인 5월 6일부터 바로 KBO 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정식경기 성립 전 우천 등으로 경기가 종료된 경우 다음 날 서펜디드 경기로 승부를 결정한다.

트레이드 마감일과 국내선수의 포스트시즌 출장 자격 시한은 7월 31일에서 8월 15일로, 외국인선수의 포스트시즌 출장 자격 시한은 8월 15일에서 9월 1일로 연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온라인 멘토’ 변신한 황의조

대한축구협회 주최 청소년 스포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28·보르도)가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일일 화상 멘토’로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가 지난 29일 오후 열린 협회의 스포츠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드림 KFA’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드림 KFA’는 협회가 2014년 시작한 사회공헌 교육 활동으로, 스포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프랑스 리그가 중단된 뒤 귀국해 지내던 황의조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듣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흔쾌히 참

가를 결정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생 22명과 만난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프랑스 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질문에도 답했다.

“휴식을 잘 취하고 훈련도 하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한 황의조는 “학생들과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색다르고 재미있었다. 학생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드림 KFA에는 김희곤 국제심판도 동참해 경험담 등을 전했다.

/연합뉴스



47세 MLB 스타 매니 라미레스 “대만리그 뛰고 싶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스타였던 매니 라미레스(47·도미니카공화국)가 40대 후반의 나이에 현역 복귀 의사를 밝혔다.

미국 NBC 스포츠는 지난 30일 라미레스가 타이완 타이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프로야구리그(CPBL)에서 다시 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라미레스는 메이저리그에서 19년 동안 통산 2302

경기를 뛰며 타율 0.312, 555홈런, 1831타점을 기록한 슈퍼스타였다.

그러나 두 차례나 금지약물이 적발되면서 2011년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다.

이후 라미레스는 2013년 대만리그의 EDA 라이노스 구단에 깜짝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2013시즌 대만리그에서 49경기에 출전해 타

율 0.352, 8홈런, 43타점의 성적을 냈다.

하지만 시즌 도중 갑자기 가족이 그림자며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났다.

이후 일본 독립 야구 팀과도 잠시 계약을 맺었던 라미레스는 7년 만에 대만리그에 플레이코치로 복귀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대부분 스포츠가 중단됐지만 대만프로야구리그는 지난 12일 시즌을 시작했다.

/연합뉴스